

野 찾아 협치 강조·5개국 특사 파견...파격·소통의 1주일

文 대통령 지역 안배 인사 등 개혁·안보 중흥무진 행보

北 도발 발빠른 대응...미세먼지 대책 등 민생정책 시동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일 행보는 소통, 개혁, 안보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 공식 확정을 알린 의사봉을 두드린 시간이 10일 8시 9분이어서 17일 오전에 일주일째를 맞았다.

첫 일정으로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고한 대비태세를 지시했던 문 대통령은 그동안 권위적인 경호를 탈피해 대국민 접촉면을 넓히면서 소통 대통령의 탄생을 알렸고, 국회로 직접 달려가 여야 지도부를 만나면서 협치 분위기를 띄웠다. 또 잇단 업무지시로 개혁과 적폐청산의 시작을 알렸고, 주요 국정상들과의 전화통화와 특사 파견으로 안보 위기에 적극 대처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을 장악할 책임자로 호남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세우면서 10여 년 동안 홀대를 받아온 호남인사 중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역별 인사를 고루 쓰는 등 지역안배에도 신경을 썼다. 특히 최측근 인사들을 인선에서 배제함으로써 파견주의 논란을 불식시켰다.

국민과 소통을 넘어 대(對)국회 관계 개선 의지를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회는 물론 야당 당사까지 직접 찾아가는 등 협치와 소통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부수석은 잇따라 국회로 보내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른바 19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며 협치를 본격화한다

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업무지시 형식으로 잇따라 발표한 정책을 통해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면서 촛불민심을 토대로 한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하는가 하면 이날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대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동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검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안보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은 물론 영국·인도·캐나다 등의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전방위 정상외교를 예고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월 하순에 조기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호 특사단을 파견하는 등 동맹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방문, "북한의 도발과 핵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역제를 위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도 굳건하게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함께한 '미세먼지 교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방문교실'에 참석, 학생들과 '깨끗한 공기'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 힘 모아 국민 삶 개선에 최선”

민주 새 지도부 첫 최고위...“100년 정당 100일 플랜 가동”

우원석 원내대표 선출과 전면적인 당직 인사 등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생 최우선의 목표를 다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추미애 대표는 “당직을 전면 쇄신하고 집권여당의 면모를 갖춘 첫 자리”라면서 “단일대오로 국민에 인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특히 추 대표는 우 원내대표에 대해 “을(乙)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열정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분쟁을 해결한 문제 해결사”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당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면서 “국정을 주도하는 강력한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이 자리매김하도록 저부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핵심 당직에 임명된 의원들의 각오도 이어졌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든든한 집권여당이라는 말을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김태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서 한 뜻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정권교체를 넘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통일 주도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의 대변화가 필요하다”면서 “100년 정당·100일 플랜을 당의 지혜를 모아 최대한 빨리 만들어내겠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이는 당·정·청이라는 국정운영 삼각기둥의 한 축으로서 집권 여당에 맞는 제정 개선 등 조속한 당 개혁 작업 마무리를 통해 집권 초기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미인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의 5년 국정운영 계획 로드맵이 마련되는 7월초 이전, 당 차원의 플랜을 완성한다는 복안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백서도 발간, 지난 선거 과정에 대한 평가 작업을 토대로 정치·정당·선거 정책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文 정부 인기영합 행보” 각 세운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등 일방적 진행”

전제구 던지며 존재감 키우기

김동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 지도부가 초반부터 대(對)문 정부에 각을 세우며 정치적 존재감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반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견제구를 날리는 데 주저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상임위원회 및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후 지난 1주일을 보면 과연 협치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비정규직 및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행보에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인기영합식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환경’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선출 직후부터 정부 예산을 동원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 추경 처리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사회적 적폐 청산에서 민주당보다 강력한 개혁적 정책성을 내세우는 한편 경제와 민생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차별화를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바른정당과의 통합보다 정책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내부 헌신을 최소화했다. 바른정당도 전날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지 않겠다고면서도 정책연대에는 문을 열어놓아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조만간 정책연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

한국당은 당권 놓고 집안싸움

홍준표 “친박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다 설치”...친박계 “낯술 드셨나”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후에도 불철사나운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자기 당권을 향한 이전투구식 내분으로 자성의 태도는 사라졌다.

1차 전선은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상남도지사야 당의 주류였던 친박(친박근혜)계 사이에서 형성됐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지사는 17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박근혜 팔아 국회의원 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는 바퀴벌레처럼 숨어있었고, 박근혜 감옥 간 뒤 슬금슬금 기어 나와 당권이나 차지해보려고 설

치기 시작하는 자들”이라며 친박계를 정조준했다.

그러자 친박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후보가 외국에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대선 이후 당내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문종 의원이 간담회에서 “페이스북에 ‘바퀴벌레’라고 썼다고 하는데 이게 제정신이나, 낯술을 드셨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 지사를 겨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 빠르고 안전한 행복의 길 <http://www.hipass.co.kr>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1월 9일 부터 충전식 선불하이패스카드를 출시합니다.

- ☑ 고속도로 휴게소 고객센터 및 하이패스센터에서 현금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속도로 모든 구간 및 하이패스가 설치된 지자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차로 또는 일반차로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행·관리하는 카드로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선불카드(하이플러스카드, 한페이카드, 이비카드 등)와 다릅니다.

더 빠르고 안전한 행복의 길 한국도로공사 | 관련 문의 : ☎ 1588-2504(한국도로공사 콜센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홈페이지 : www.hipass.co.kr